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5 Issue | Vol. 7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성장 목표 여전히 ‘달성 가능’ — DBM
— page 1-2
- ‘EU, 필리핀의 주요 FDI 투자국에 포함돼야’
— page 2-3
- 중앙 루손 지역, 10월 30일부터 임금 인상 시행
— page 3-4
- IMF, 필리핀의 안정적 성장 전망
— page 4-5
- 에너지부, 석탄발전 중단 규정 명확히...
예외적 경우에만 신규 발전 용량 허용
— page 5-6
- 마르코스 경제팀, 개혁 성과 바탕으로
‘A등급’ 신용평가 상향에 낙관
— page 6-7
- 정부, 조세 및 비조세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 page 7-8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 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8

성장 목표 여전히 ‘달성 가능’ — DBM

October 17,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필리핀 예산관리부(DBM)의 아메나 F. 팡안다만 장관은 올해 4분기 지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리핀 경제가 올해 5.5~6.5% 성장 목표 범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 의장도 검임하고 있는 팡안다만 장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인 5.5~6.5%가 “여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팡안다만 장관은 10월 15일 ****비즈니스월드(BusinessWorld)****와의 바이버(Viber) 메시지 인터뷰에서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지출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공공사업도로부(DPWH)가 자사 프로젝트 목록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함에 따라, 공공 인프라 지출의 일시적인 둔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랄프 G. 렉토 재무장관은 이번 주 초, 경제성장이 3분기에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엄격한 조사로 인해 정부 지출이 위축되면서 이러한 둔화세가 2026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국정연설(SONA)에서 비정상적인 홍수 통제 사업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정부



A vendor sells Halloween decorations at a market in Quezon City, Oct. 13. — PHILIPPINE STAR/ MIGUEL DE GUZMAN

관계자, 민간 계약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패 의혹에 대한 여러 조사가 촉발되었다.

앞서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 경제장관은 DBCC가 3분기 경제 지표가 11월 7일 발표된 이후에 성장 목표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부 지출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5.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보다 느린 수준을 보였다.

팡안다만 장관은 재정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경제팀이 “경계심을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기 재정 틀(MTFF)에 맞춰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DBCC는 지난 6월, 중동 지역 분쟁과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2025년 성장률 전망을 5.5~6.5%, 2026년을 6~7%로 하향 조정했다.

팡안다만 장관은 건전한 거시경제 기반,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낮은 금리 환경 등이 국가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호한 신용 및 금융시장 상황, 민간 부문의 강화된 성장세,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공공 지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2]

성장 목표 여전히 ‘달성 가능’ — DBM

[Cont. from page 1]

한편, 렉토 재무장관은 목요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홍수 통제 사업 비리 사태 이후 개선된 거버넌스와 제도 개혁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금리 정책, 강한 소비 지출, 그리고 활발한 노동시장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평균 1.7%를 기록했으며,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전망치와 일치했다.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의 선임연구원인 존 파올로 R. 리베라 박사는 글로벌 역풍, 취약한 소비심리, 그리고 재정 제약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DBCC가 거시경제 가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경제 관리 당국이 경기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해 표적 경기 부양책과 제도 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라 박사는 “3분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성장률은 연말 소비 시즌 동안 국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는지, 정부 지출이 가속화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 머무르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테네오 경제연구개발센터(ACERD)의 퍼시벌 K. 페냐-레이에스 소장은 홍수 통제 사업 부패 스캔들을 감안해 DBCC가 성장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 스캔들이 투자자 심리에 냉각 효과를 주고 있다”고 목요일 바이버 메시지에서 언급했다.

페냐-레이에스 소장은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5.2%)보다 높은 5.6%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정부 목표 범위의 하단인 5.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4년 수정 전망치인 5.7%보다 낮은 수치다.

경제자유재단(FEF)의 칼릭스토 V. 치키암코 회장은 필리핀 경제가 여러 역풍으로 인해 올해 다소 “실망스러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렉토, 부가가치세 인하안 거부

렉토 재무장관은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부가가치세(VAT)율을 10%로 인하하자는 방안에 대해, 이 조치가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정부가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5년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했던 렉토 장관은 “2025년 예상되는 총 부가가치세 수입 1조 3,900억 페소는 재직 및 퇴직 공무원의 급여, 보험료, 연금 지출을 9개월치만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현재 여러 의원들이 12%의 부가가치세율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국세청(BIR) 전체 세입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렉토 장관은 올해 5,760억 페소로 예상되는 물품세(Excise Tax) 수입만으로는 기초, 고등, 그리고 기술·직업 교육 프로그램 예산 9,650억 페소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17/706153/growth-goal-still-attainable-dbm/>

EU, 필리핀의 주요 FDI 투자국에 포함돼야

October 17,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 유럽상공회의소(ECCP)는 유럽연합(EU)이 필리핀의 상위 5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개혁 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2]

EU, 필리핀의 주요 FDI 투자국에 포함돼야

[Cont. from page 2]



A vendor sells Halloween decorations at a market in Quezon City, Oct. 13. — PHILIPPINE STAR/ MIGUEL DE GUZMAN

ECCP의 파울로 두아르테 회장은 목요일 마카티시에서 열린 유럽-필리핀 비즈니스 대화 포럼(European-Philippines Business Dialogue)에서 “FDI 측면에서 유럽은 현재 상위 5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을 그 상위 5위권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투자유치서비스국의 에바리스트 카가탄 국장은 같은 포럼에서, 2025년 상반기 동안 투자유치기관(IPAs)이 4,800억 페소가 넘는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가탄 국장은 2025년 투자 파이프라인 중 약 20%가 싱가포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개혁들을 도입했다”며 “이제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실행하고, 정책 개혁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가탄 국장은 또한 “유럽 기업들로부터의 투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이어 “우리의 주요 성장 목표 분야와 유럽이 강점을 가진 분야 사이에는 상호 보완 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CCP의 파울로 두아르테 회장은 필리핀의 투자 매력 강화를 위한 경제 자유화 개혁의 ‘실행(execution)’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마련된 개혁을 실행하길 요구하는 것”이라며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실행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세안 지역 내 유럽의 전체 투자 중 단지 4%만이 필리핀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아르테 회장은 필리핀 정부와 민간 부문이 이 4%의 비율을 더 큰 수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리핀 내 유럽법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필리핀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와 필리핀은 다음 주에 EU-필리핀 FTA 제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아르테 회장은 “EU 측 대표단이 다음 주 세부(Cebu)를 방문해 필리핀 내 유럽 산업계의 실제 의견을 전달하고, 개혁이 실행되는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부분, 개혁이 제대로 실행되는 부분,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고충 지점(pain points)’을 파악해야 한다”며,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OI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필리핀과 EU 간 총 교역액은 155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필리핀의 EU 수출은 80억 7,000만 달러, 수입은 74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Image credits: AP/Omar Havan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0/17/top-fdi-sources-of-phl-must-include-eu/>

중앙 루손 지역, 10월 30일부터 임금 인상 시행

October 15, 2025 | Jonas Reyes | Daily Tribune

중앙 루손 지역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50페소에서 80페소까지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 이는 중앙 루손 지방 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RTWPB III)가 발표한 새로운 임금 명령의 일환이다.

RTWPB III는 임금명령 제RBIII-26호(Wage Order No. RBIII-26)를 통해 지역 내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일일 최저임금을 50페소에서 80페소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인상은 두 단계(tranche)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Cont. page 4]

중앙 루손 지역, 10월 30일부터 임금 인상 시행

[Cont. from page 3]

중앙 루손 지방 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RTWPB III) 위원장이자 노동고용부(DOLE) 지역국장인 제럴딘 판틸리오(Geraldine Pantilio)는 첫 번째 임금 인상분이 20페소에서 40페소 범위로 오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두 번째 인상분은 30페소에서 40페소 범위로 2026년 4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틸리오 위원장은 또한 바타안(Bataan), 불라칸(Bulacan),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 팜팡가(Pampanga), 타락(Tarlac), 삼발레스(Zambales) 지역의 경우, 첫 번째 인상분 시행 시 비농업 부문은 570페소, 농업 부문은 540페소, 소매·서비스 부문은 560페소로 최저임금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인상분이 시행되면 임금은 각각 비농업 부문 600페소, 농업 부문 570페소, 소매·서비스 부문 590페소로 추가 인상된다.

아우로라(Aurora) 지역의 경우 첫 번째 인상 시 비농업 부문은 530페소, 농업 부문은 515페소, 소매·서비스 부문은 475페소로 인상되며, 두 번째 인상분이 시행되면 각각 560페소, 545페소, 515페소로 조정될 예정이다.

판틸리오 위원장은 중앙 루손 지역의 가사도우미(kasambahay)들도 임금명령 제RBIII-DW-05호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명령은 월 최저임금을 500페소 인상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6,500페소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TWPB III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발표된 임금 명령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고용주의 지불 능력, 기업 생산성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tribune.net.ph/2025/10/15/central-luzon-wage-increase-starts-30-october>

IMF, 필리핀의 안정적 성장 전망

October 16,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In its October 2025 World Economic Outlook (WEO), the IMF projected the country's current account deficit to narrow to 3.8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2025 and 3.5 percent in 2026 from four percent in 2024.

AFP / File

마닐라 — 국제통화기금(IMF)은 필리핀이 향후 2년 동안 완만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외적 역풍과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서도 필리핀 경제가 견조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IMF는 2025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4년 4%에서 2025년에는 3.8%, 2026년에는 3.5%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개선세는 수입이 정상화되고 해외송금 유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국제수지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IMF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조치가 “경제활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성장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견조하게 유지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IMF는 필리핀을 비롯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 시장의 예측을 하회했다”고 덧붙였다.

IMF는 2025년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4%로 유지했으며, 2026년에는 5.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5.5% 이상, 내년 6%의 성장 목표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2024년 3.2%에서 2025년 1.6%로 하락해 정부의 2~4% 목표 범위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2.6%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3.9%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2024년 예상치로 제시한 3.8%와 거의 유사하다.

IMF는 또한 아세안(ASEAN) 5개국 가운데 필리핀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역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두 해 모두 4.9%, 말레이시아가 각각 4.5%와 4.0%, 싱가포르가 2.2%와 1.8%, 태국이 2.0%와 1.6%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Cont. page 5]

IMF, 필리핀의 안정적 성장 전망

[Cont. from page 4]

IMF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 3.2%, 2026년 3.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의 성장률은 약 1.5%,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됐다.

IMF는 “리스크는 하방 요인에 치우쳐 있다”며, “지속되는 불확실성,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노동공급 충격 등이 성장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재정적 취약성,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제도적 신뢰의 약화 등이 글로벌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16/2480112/imf-sees-steady-growth-philippines>

에너지부, 석탄발전 중단 규정 명확히... 예외적 경우에만 신규 발전 용량 허용

October 17, 2025 | Sheldeen Joy Talavera | BusinessWorld

에너지부(DoE)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모라토리엄) 정책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계통 연계형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용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세린 S. 가린 에너지부 장관이 서명한 공고문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인준 신청 절차를 규율하는 추가 조건과 예외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자가발전용 또는 자체 사용을 위한 설비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적용 여부, 그리고 계통 연계(on-grid) 및 비계통(off-grid) 지역에서의 신규 용량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부는 2020년 모라토리엄을 통해 신규(그린필드) 석탄 프로젝트의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히며, “비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신규 사업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해석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공식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사례 및 면제 조항

에너지부(DoE)는 개정된 정책에 따라 계통 연계형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발전 용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력 위기 선언 또는 임박한 전력 부족 사태와 같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특정 지역이나 권역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부족 상황”이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부는 모라토리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석탄발전 프로젝트도 명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자체 운영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려는 경우, 단지 입주 기업이 필리핀경제특구청(PEZA)의 인준을 받은 경우에 한해 모라토리엄 비적용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비계통(off-grid) 지역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역시 명시적으로 면제되며,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의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석탄발전소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모라토리엄 비적용 확인서(letter of acknowledgment of non-coverage)’ 발급을 위해 에너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비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는 확정된 전력 공급 또는 상업운전일(COD)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변경 시 에너지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문은 또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또는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기한이 설정된 전환계획(time-bound transition plan)을 마련해야 하며, 2060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정연료로 전환하거나 폐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규정은 해당 발전소가 석탄 대체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개조(retrofitting)나 전환(conversion)을 통해 운영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는 이번 개정 공고가 필리핀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원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또는 전환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소의 경제적 수명, 금융조달 접근성, 대체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 page 6]

에너지부, 석탄발전 중단 규정 명확히... 예외적 경우에만 신규 발전 용량 허용

[Cont. from page 5]

시행

이번 공고문은 에너지규제위원회(ERC), 필리핀경제특구청(PEZA) 등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 전원에게 전달되었으며, 에너지부(DoE)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에너지부는 “필리핀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안보, 합리적 비용, 그리고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5/10/17/706162/doe-clarifies-coal-moratorium-rules-allows-new-capacity-only-in-exceptional-cases/>

마르코스 경제팀, 개혁 성과 바탕으로 ‘A등급’ 신용평가 상향에 낙관

October 16, 2025 | Derco Rosal | Manila Bulletin



The Philippines' economic managers in consultation at the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DBCC) meeting: (from left)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Secretary Arsenio M. Balisacan,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Secretary Frederick D. Go, Finance Secretary Ralph G. Recto, and Budget Secretary Amenah F. Pangandaman at the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meeting. (DOF photo)

한눈에 보기

- 마르코스 행정부의 경제팀은 필리핀이 2028년까지 단일 A등급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장 친화적 개혁 조치들이 빠르고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의 경제팀은 필리핀이 2028년까지 ‘A등급’ 국가신용등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성장 촉진형 개혁 조치들이 빠르고 유망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10월 9일 공개된 ‘2022~2030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MTFF)’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내각급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필리핀이 단일 A등급 신용등급 달성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은 랄프 G. 렉토 재무장관이 지난 10월 14일(화요일) 기자들에게 S&P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올해 필리핀의 신용등급 상향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힌 직후다.

S&P의 결정은 정부의 홍수 방지 예산과 관련된 부패 의혹 사건들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S&P 글로벌은 필리핀의 BBB+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보류했다. 이는 최근 홍수 방지 사업의 혼란이 신용평가사들에게 경고 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진행 중인 구조 개혁의 신속한 시행, 지속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핵심 산업 부문을 외국인 투자 및 소유에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 덕분에 견고한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DBCC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말 재무부(DOF)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했다.

이들 조치에는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법(CREATE MORE Act) 과 민관협력(PPP) 기본법(PPP Code) 이 포함되어 있다.

CREATE MORE 법은 올해 세수 감소액이 3억 페소(₱300 million)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2026년 10억 페소, 2027년 17억 페소, 2028년 29억 페소, 2029년 36억 페소, 그리고 2030년 35억 페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8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99년 동안 민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화국법 제12252호(Republic Act No. 12252) 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존의 50년 제한을 수정한 것으로, 투자자 임대법(Investors' Lease Act) 을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장기 임대 계약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산업 단지, 공장, 농공 복합 프로젝트, 관광, 농업, 산림 복합 산업, 생태 사업 등을 포괄한다. [Cont. page 7]

마르코스 경제팀, 개혁 성과 바탕으로 'A등급' 신용평가 상향에 낙관

[Cont. from page 6]

DBCC(개발예산조정위원회)는 “경제의 지속적인 다각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력과 유연성을 강화하여, 단일 A등급으로의 등급 상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팀은 코로나19 위기가 국가의 신용등급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없었다면, 위기 이전의 안정적인 세수 동원 및 재정 통합 실적을 고려할 때 필리핀은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라고 DBCC는 덧붙였다.

국가의 세수 노력(세입 대비 국내총생산 비율, revenue-to-GDP ratio)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024년의 16.7% 수준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6.7%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30년에 16.8%로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이전에는 2019년에 16.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0년 15.9%, 2021년 15.5%로 하락했다. 이후 2022년 16.1%로 회복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15.7%로 떨어졌다.

현 행정부의 경제수장인 라파엘 렉토(Ralph Recto)는 국회가 현행 12%의 부가가치세(VAT)를 10%로 인하하려는 시도가 국가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말 기준, 부가가치세는 관세청(BOC)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렉토 장관은 “부가가치세를 인하는 정부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재무부(DOF)는 연간 평균 약 3,000억 페소(P300 billion), 즉 국내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은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반영한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은 경제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된다.

투자등급 신용등급(investment-grade rating)은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설정할 때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은 피치(Fitch Ratings), 무디스(Moody's Ratings), S&P 글로벌(S&P Global)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는 임기 종료 전인 2028년까지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A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urce: https://mb.com.ph/2025/10/16/marcos-economic-team-bullish-on-a-credit-rating-upgrade-on-reform-gains](https://mb.com.ph/2025/10/16/marcos-economic-team-bullish-on-a-credit-rating-upgrade-on-reform-gains)

정부, 조세 및 비조세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October 15,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Department of Finance facade (File photo)

마닐라 - 랄프 렉토 재무장관은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세금 및 비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부문(다계층) 실무 그룹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다부문 실무 그룹은 재무부가 주도하며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할 예정으로, 필리핀의 투자 환경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DOF)는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지시가 지난 화요일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BC)과의 대화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 지도자들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마르코스 행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참석한 기업으로는 몬델리즈 필리핀(Mondelez Philippines), 유니레버(Unilever), SGV & Co., 펩시코 필리핀(PepsiCo Philippines), 필리핀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쇼피(Shopee) 등이 있었다.

재무부(DOF)는 논의된 주요 사안 중 하나로 RMC(Revenue Memorandum Circular) 제5-2024호의 시행을 꼽았다. 이 지침은 비거주 외국 법인이 참여하는 국경 간 서비스의 과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Cont. page 8]

정부, 조세 및 비조세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Cont. from page 7]

회의에서 렉토(Recto) 의원은 기존 세금 통지서 검토와 세무 평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디지털 솔루션 발굴을 위해 정부가 기업 부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BIR) 국장 로메오 루마기 주니어(Romeo Lumagui Jr.)도 해당 RMC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무부(DOF)에 따르면 루마기 국장은 렉토 의원이 제안한 MBC와 국세청의 협력을 통한 핵심 조항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렉토 의원은 기업 지도자들에게 정부가 부패를 근절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디지털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특히 국세청, 관세청, 재무청 등에서 재무부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는 데 민간 부문의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MBC 의장 에드가 추아(Edgar Chua)는 기술과 의견 제공을 통해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61053>

UPCOMING EVENT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CCP)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할 테이블 후원사(Table Sponsor) 또는 경품 후원사(Raffle Sponsor)를 모집합니다.

이번 연말 행사에는 한국과 필리핀의 주요 기업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성탄절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Chi / Ms. Sang
Tel No. +632-8885-7342
Mobile: 0917-801-5920 | 0915-888-7296 (both available in Viber & Kakaotalk)
email info@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KEPCO
PHILIPPINES
KEILCO
KEPHILCO
KSPC
KPHI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